

신안,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평택시의 섬 표지석 세워

신안군-평택시 자매결연 체결 및 섬 선포 1주년 제막식

명실상부 관광지 가거도에 포토존으로 자리매김 '기대'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7일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에서 경기도 평택시와 자매결연협약 체결 및 평택시의 섬 가거도 선포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막식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정장선 평택시장,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표지석은 평택시의 유명한 '슈퍼오닝 쌀'의 쌀눈 모양을 본떠 제작돼 지역 정체성을 부각했다. 또한, 여객선을 타고 내리는 관문에 설치돼 가거도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자매도시 평택시를 알리는 데 특히 역할을 하고, 명실상부 관광지인 가거도에 또 하나의 포토존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박성태 기자 tst5866@

신안군과 평택시는 행정·관광·문화·예술·교육·체육 등 각 분야별 다양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5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평택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신안군의 섬(가거도)을 공유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섬이 없는 자매도시에 신안의 아름다운 섬을 공유해 상호 문화 및 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발한 우호교류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14일 김해시의 섬 하의도 선포식을 하는 등 자매도시 간 섬 문화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바다위의 정원 신안군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7일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에서 경기도 평택시와 자매결연협약 체결 및 평택시의 섬 가거도 선포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안군 제공

목포 문화재 야행, 10월 온라인 중심 개최

23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금요일·토요일 분산 운영

2020 목포문화재 야행(夜行)이 오는 23일~24일, 30일~31일에 근대역사문화 공간 일원에서 개최된다.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플리마켓, 식음코너를 제외하는 등 오프라인 행사를 축소하고 교통 통제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야행은 근대역사문화 거리의 대표 문화재 공간 내에서 공연과 전시 위주 행사를 진행하며 목포 문화재 야행 유튜브 채널 등에서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던 타임즈'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야행에서는 근대 문화와 가요를 통해 모던 시대의 목포의 모습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근대역사관 2관을 주무대로 이난영과 김시스터즈의 이야기를 뮤지컬 형식으로 연출한 '김시스터즈 목포 야행을 걷다'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목포 시민들이 모델로 참여한 '페션 모던타임'과 전기수가 들려주는 '목포전설'이 공연된다.

근대역사관 1관에서는 100년전 목포 근대 콘서트홀로 연출된 '근대가요콘서트'와 근대음악사학자 장유정 교수가 들

려주는 '렉처콘서트(해설이 있는 근대 가요 쇼)' 폐막공연이 진행된다.

작년 야행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던 '나는 너! 독립군' 스크립 투어와 렌선 문화재 투어, 문화재 끌든별 등은 가정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로 마련했다.

거리 공연은 없지만 문화재 공간마다 특색 있는 볼거리 및 소규모 공연들이 펼쳐진다.

성우기념관에서는 트로트와 오페라를 접목한 '오페라 갈라쇼'와 '100년을 묵혀온 춤, 1000년을 이어갈 춤'이라는 주제로 국가무형문화재, 도무형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춤 12선을 만나볼 수 있다.

경동성당과 공립심상초학교에서는 최초 한국 재즈 여가수 이난영의 음악으로 '모던타임 목포재즈' 공연과 목포의 독립 운동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인형극 '복촌사람들'을 관람 할 수 있다.

목포진 역사공원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목포여 놀자'라는 부제로 입체벽화, 모던클렉손 등 전시와 네온사인 포토존으로 꾸며진다.

근대역사관 1관에서는 100년전 목포 근대 콘서트홀로 연출된 '근대가요콘서트'와 근대음악사학자 장유정 교수가 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강진, 배드민턴 꿈나무 전국선수권대회 개최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 72개팀 800여 명 참가

전남 강진군에서 오는 25일부터 31일 까지 대한민국 초등학생 배드민턴 꿈나무들의 기량과 실력을 겨루는 전국 선수권 대회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제63회 전국여름철종별 초등학교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전남배드민턴협회, 강진군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이다. 전국에서 72개팀, 800여 명이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모여 국내 초등학교 선수 중 최강자 를 가린다.

이번 대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단체 전과 개인전, 28일부터 31일까지 개인전 이 진행된다. 무관중 대회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스포츠 메가 강진군은 매년 약 60여 개의 전국규모 및 동호인 대회를 개최해 스 포츠와 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하지만 군은 탁구전용경기장 착공, 종 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조명등 설치, 실

내수영장 리모델링 등 스포츠 시설 개선 및 보완으로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재반 여건을 확충했다.

이번 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개최가 확정됐다. 군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준비중이다.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 계를 구성하고 대회장 환경정비 및 소독, 대회장 출입시 한방향으로만 이동, AD카드 발급 등 출입인원 식별을 통한 대회 관계자 외 출입 제한, 일일 텁별 건강상태 점검표 제출, 일일 텁별 동선 점검표 작성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강진=윤규진 기자 jin2001@

영암군-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협약 체결

농축특산물·관광판로 개척 및 창업·일자리 창출 협력

영암군은 지난 16일, 전동평 영암군수 와 정영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농축 특산물·관광판로 개척 및 창업·일자리 창출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 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전남 내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기획 및 판매, 창업 멘토링과 우수 인재 양성 및 인재 매칭 취업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영암군과 창경센터는 첫 협력사업으로 11월 11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2020 氣찬들 영암 농특산물 품평·박람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이날 창경센터의 협력사인 GS리테일, 농협하나로유통, 한화갤러리

아, 신세계백화점, Y-MART 등 국내 유력 20개 유통회사 MD들이 참여해 영암군 농특산물에 대해 상품, 디자인, 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계약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영암군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2021년부터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협의를 했으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영암군에 찬들 영암 농특산물 품평·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창경센터의 협력사인 GS리테일, 농협하나로유통, 한화갤러리

/영암=윤규진 기자 jin2001@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나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릅니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빛은 꽃이 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



합평군보건소, 흄스쿨링 '호평'

합평군보건소가 어린이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흄스쿨링 프로그램이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6일 보건소에 따르면 흄스쿨링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교 1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소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들의 야외 신체활동이 위축된 데다 배달음식 섭취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별 적정체중 유지를 위해 흄스쿨링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보건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스티커형' 교육교재를 자체 제작해 무상 배포했다. 가족과 가정에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건강간식 만들기' 재료도 무료로 제공했다.

특히 비대면 방식의 공식 SNS(밴드)를 통해 회차별 학습지도안을 제공하고 활동내역 인증, 프로그램 피드백 등을 수시로 교환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비대면 교육지도체계를 구축했다는 평이다.

정명희 합평군보건소장은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교재 완성 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어린이에게는 건강꾸러미 세트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성장기 아이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합평=박동주 기자 df3141@

무안군 "군민 정신건강 챙긴다"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롯데아울렛 남악점에서 아울렛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 스트레스 등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군민의 심리방역을 위해 실시했으며 밸열체크와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진행됐다.

이날 보건소 직원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홍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과 함께 군민들의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 다양한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을 공유했다.

특히 일대일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해 우울정도를 진단했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안=고민재 기자 mijo@